

#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보고(5차) 결과

## □ 업무보고 개요

- 목 적 : 전략사업본부 사업계획 보고
- 일 시 : 2018. 2. 27.(화) 15:00~17:00
- 장 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 참 석
  - 서 울 시 : 대표이사 직무대행, 디자인기획팀장
  - 재 단 : 윤대영 본부장, 이소연 팀장, 강경남 팀장, 기획경영팀 배석

## ○ 진행순서

연 번	시간	내용	비고
1	15:00~15:30	결재 건 보고	서울시, 단장, 기획경영팀장, 경영지원팀장
2	15:30~16:00	전략사업본부 보고	윤대영 본부장, 이소연 팀장, 강경남 팀장
3	16:00~16:20	강 평	-
4	16:20~17:00	서울새활용플라자 투어	전략사업본부

## □ 회의록

○ 보고시간: 15:30~17:00

### ○ 전략사업본부장

- 준비기간은 1년이었으며 설계는 삼우, 리터치는 승효상 선생이 진행.  
시공은 동원건설
- 계약직 현재 9명 공고났으며 인수인계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진행할 것임. TO는 16명인데 현재 적게 운영되고 있음
- 기후환경본부에서 위탁을 주었으며 사업비는 18억임
- 리사이클 개념이 아니라 업사이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32개 입주한 상황임

### 〈콘텐츠기획팀〉

- 소재은행의 개념은 무엇인지?  
작년에 재단 맡으면서 촉박해서 전시로 소개했으며 이제 공급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
- reuse, recycle, upcycle 차이는 무엇인지?  
재사용의 개념과 물리적으로 분해해서 다시 만드는 것과 새로운 활용처를 찾는 차이가 있음
- 개관을 작년 9월에 진행하면서 서울하수도과학관, 서울리사이클센터, 도시금속회수센터,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물재생센터 등과 연계 시행함
- 현장학습 400여회, 체험교실 120회, 전문 강연 및 실무 교육 진행
- 교육과 홍보 예산은 어떠한지?  
교육 3억이며 강사는 내외부 강사풀을 가지고 있고 스튜디오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새활용전시는 1,2회는 2017년과 2018년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재단에서 주관해서 진행함. 전시는 1년 내내 진행하며 계속 교육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전시는 변경함
- 새활용위크는 처음으로 계획 중임
- 하수도과학관은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함
- 장수모이장은 장수군에서 나와서 마켓을 여는 것임
- 6명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바쁠 것 같음

## 〈공간마케팅〉

- 꿈꾸는 공장은 24시간 개방 가능한지?  
8시에는 문을 닫음. 프로젝트 상황에 고려하고 있음
- 4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체험하고 있음
- 작년 12월 말 장비, 장치 모두 세팅했으며 4월에 오픈 예정임
- 비슷한 사례는 세운상가 서울팸랩과 유사함. 그곳은 교육 위주로 운영. 메이커스룸과 유사
- 스튜디오 32개 입주 중. 2차 걸쳐 모집하였음. 임대료가 싸서 많이 지원하는 편. 새활용으로 특화된 공간을 목표로 하며 업사이클 전문화 하고 있음
- 임대료는  $m^2$ 당 1,600원 받음. 회의실 기준 한달에 2만원 정도임
- 문화본부와 연계된 행사 다수 참여 예정
- 대중교통은 어떠한지? 마을버스는 노선이 안 좋아서 운영을 하지 않고 단체 픽업 서비스로 진행. 서울시에서 전기버스(30인승) 추가 예정
- 테라사이클은 컨설팅 기관인가? 미국 사회적 기업으로 200억 규모이며 서울지사 들어옴

- 에코파티 메아리는 아름다운 가게 산하부서로서 매장을 운영함
- 현장을 봐야 하겠음.

### 〈총 강평〉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와 일하기 어떠한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행정적인 문제로는 모든 절차가 계약심사를 받는 것임
- 재단입장은 계속 가는 것이 좋은지?  
업사이클링을 하는 이유는 빅터파파넥이 말한 것처럼 디자인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디자인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되므로 디자인재단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라 생각하며 소재는 MFC를 다루기 때문에 업사이클과 연관됨
- 위탁기관은 어떠한지? 3년임.
- 계약직 오고 빠지면 연속성 없을 것 같은데 계약직은 오면 2년마다 바뀔 텐데 대책이 있는지?  
급하게 업무를 맡고 수행해야하는 것이 어려움. 새로 들어온 계약직과의 조직 융합의 이슈가 있음. 대책이 필요함.
- 자꾸 계약직을 늘리면 안정이 안 됨. 재단은 계약직 비율 높은 것 같음. 일단 현장을 둘러보겠음.

### 〈현장시찰〉